



## 어촌어항 문화, 이제 정신적인 측면으로 승화돼야

**제** 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가 18일 열렸다. 지난 94년 제7회 공모전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 행사가 2002년부터 재개돼 격년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우리 국민의 어촌어항 문화 이해와 관련해 커다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어촌어항에 대한 문화를 다양하게 추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살찌우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문화에 관한한 편식성과 일과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각종 매스컴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 우르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다가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말끔히 잊어버리는 게 작금 우리의 문화 행태이다.

일반적으로 어촌어항 문화라고 하면 풍어제를 떠올리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것도 어업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풍어제가 아니라 전통기능 보유자 한명, 또는 많아야 서너 명이 무대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보니 어촌어항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의 취지는 바로 이것이다. 어촌어항 문화에 대한 편식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고착된 생각을 바꿔 보겠다는 뜻이다.

사실 국민 대부분이 바다에 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은 바다하면 수산물 생산의 현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어촌어항 문화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 어촌어항 문화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그동안 어촌어항 어장 하면 언뜻 떠오르는 첫 인상이

수산물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다 수산물 물류 유통 교역의 현장까지 함께 합친 종합 생활 공간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질추구 문화에서 벗어나 바다에 관한 정신적인 면까지 승화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만 되면 바닷가로 모여드는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촌어항 문화와 연계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잡는 어업의 전망은 불투명하며, 기르는 어업 역시 고도의 기술을 어업인들에게 전수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가 필요한 수산물 제조 가공도 어업인들에게겐 그림 속의 떡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어촌어항을 떠나 살수는 없으며 누군가가 지켜야 하지 않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시골에 살아도 문화적 긍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직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측면까지 관통할 수 있는 그 무엇, 바로 이것을 발굴 보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리라곤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가지 방법론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잠재된 또 다른 어촌어항 문화 진작방안을 유도해 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형학적 현상은 우리가 결코 바다를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당위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어촌어항어장 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풀어 나가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어촌어항소식)

